

Noto Sans KR Black

나스닥 하락은 미끼였다: 베센트의 치밀한 선거 전략

2026년 대혼란의 시장, 그 이면에 숨겨진 재무부의 시나리오

현재의 시장 조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브레인, 베센트 장관이 설계한 11월 중간선거 필승 전략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락장은 거대한 반등을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진 자산 시장: 무엇이 잘못되었나?

충격의 확산 (Sequence of Impact)



비트코인 (Bitcoin)

나스닥 (Nasd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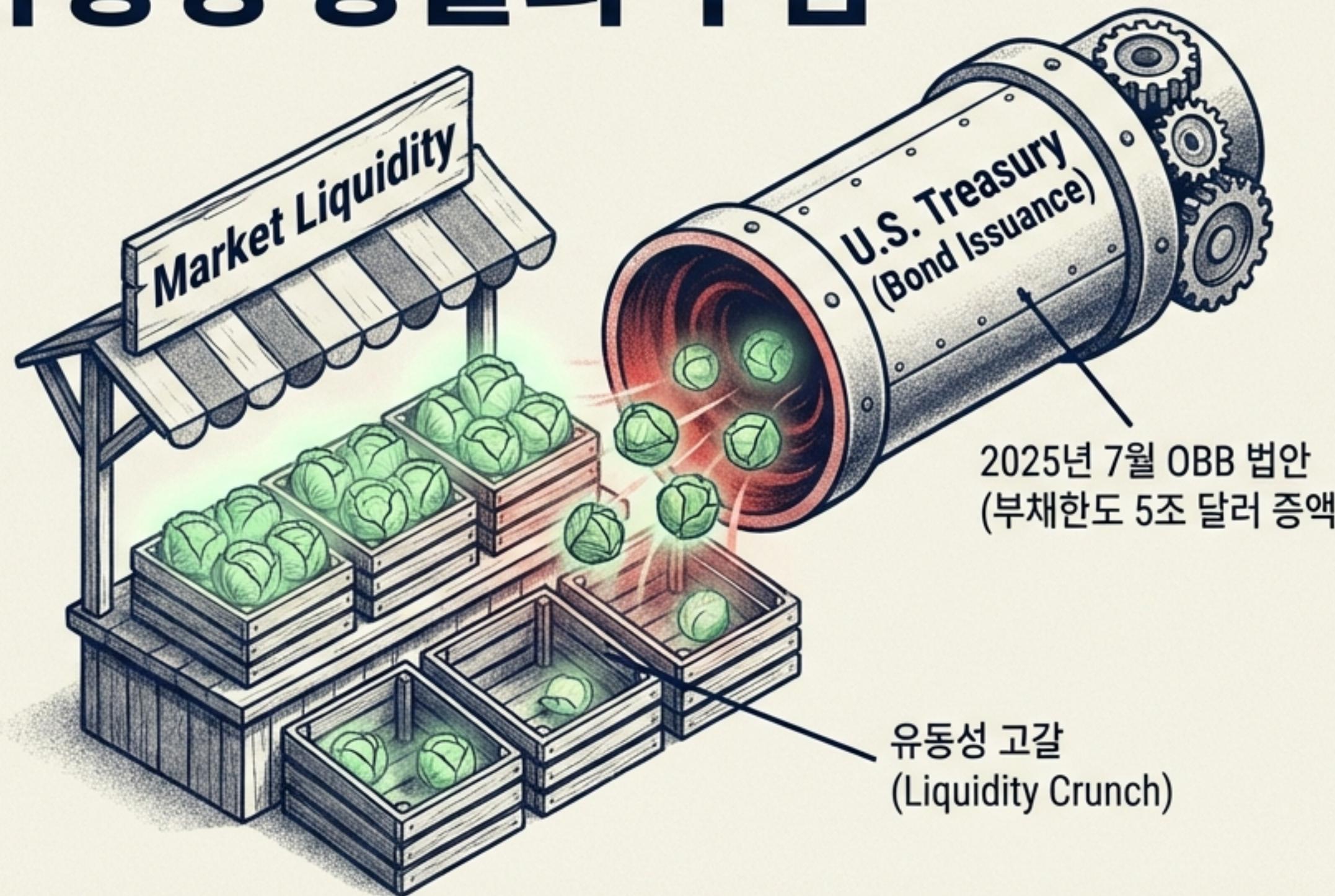
금 (Gold)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가 부양을 원하는데, 왜 시장은 역행하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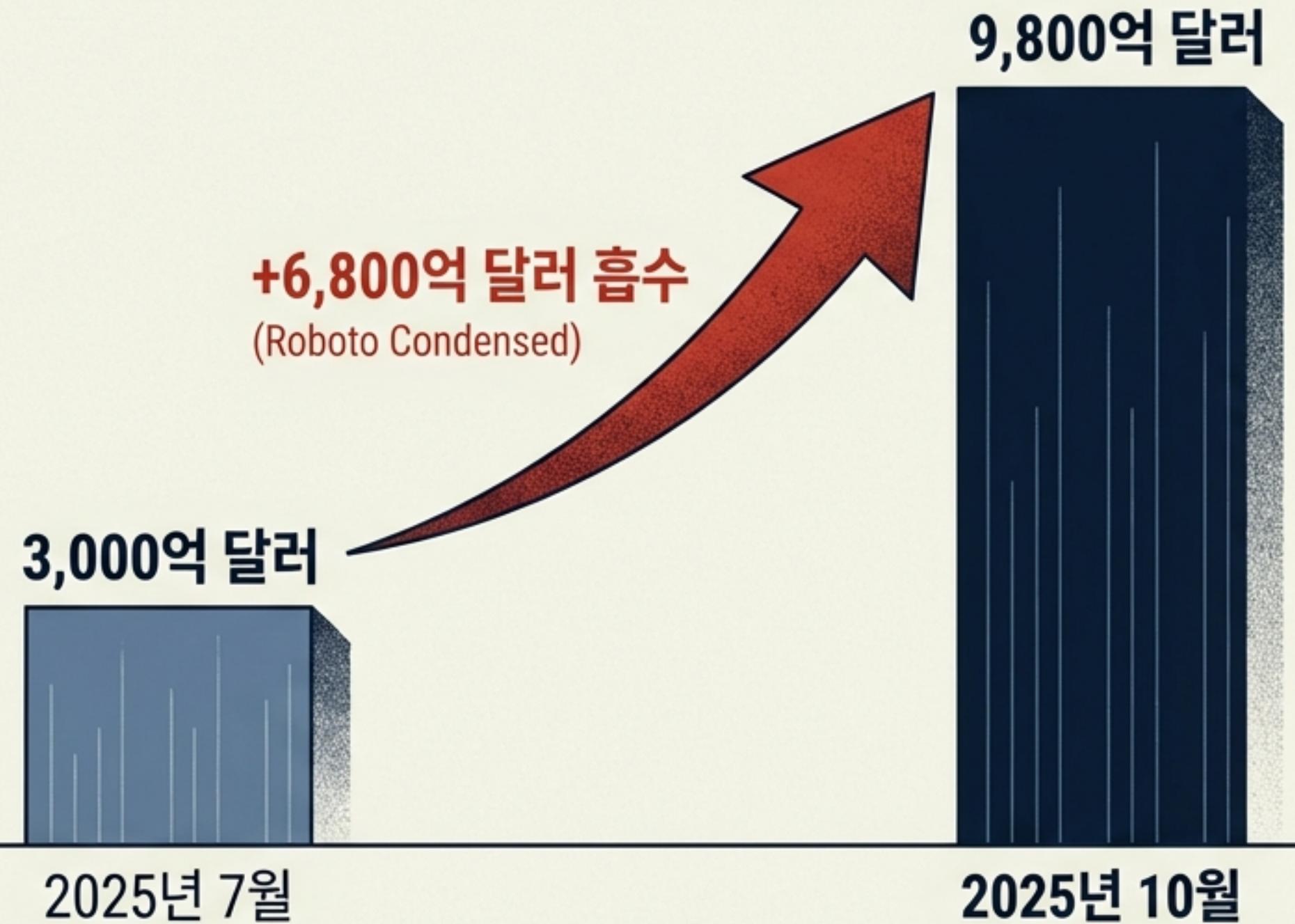
시장의 배추를 싹쓸이하다: 유동성 증발의 주범



국채 발행 폭증: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시중의 현금(유동성)을 빼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가 가동되었습니다.

원리: 시장 전체 자금이 100조인데 정부가 20조를 빌려가면, 돈이 귀해지고 자산 가격은 하락합니다.

TGA 잔고의 비밀: 적자 국가의 금고가 넘쳐난다



해석: 만성 적자국인 미국 재무부에 현금이 쌓였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를 찍어 시중 자금 6,800억 달러 이상을 강제로 흡수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결과: 7월~9월 사이 약 1조 달러의 적자 국채 발행이 시장의 피를 말렸습니다.



\$

NotebookLM

1-2월의 미스터리: 세금 환급금은 어디로 갔나?

세금 환급
(+3,000억 달러)



- 통상적 상황: 1~2월은 세금 환급 시즌으로 유동성이 늘어나야 함.
- 실제 상황: 환급액보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 유동성 공급을 원천 차단.
- 비교: 사라진 4,000억 달러는 2023년 SVB 사태 당시 시장을 폭등시켰던 긴급 수혈 자금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왜 지금인가? : 유권자의 기억력은 2주다



Voter Memory:
2 Weeks
(Roboto Condensed)



지금 상승은 무의미
(Too Early)

실탄 비축 구간
(Cash Hoar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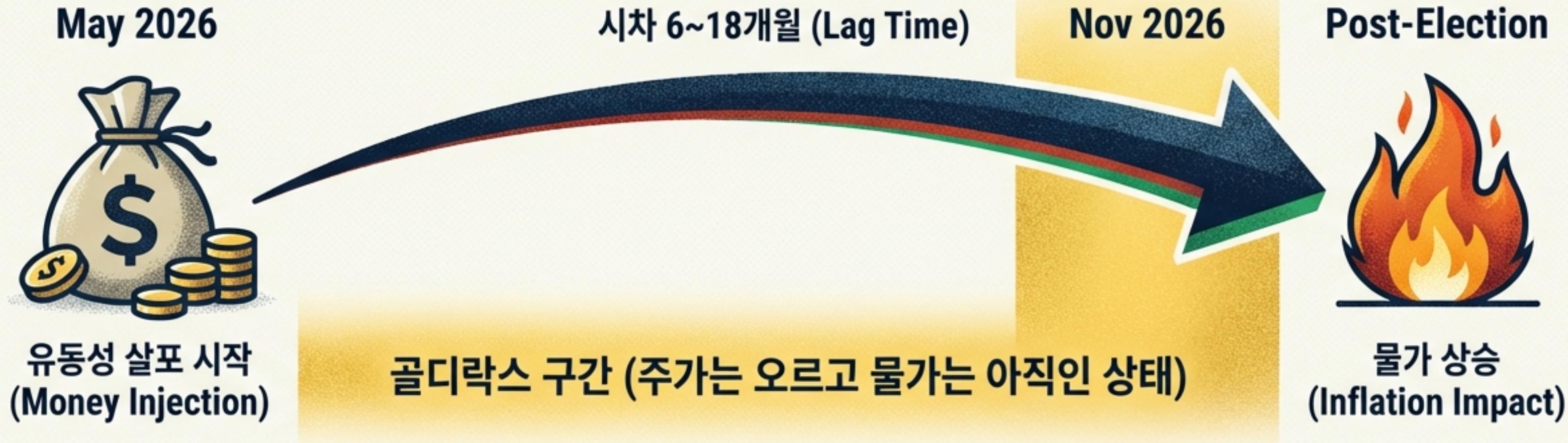
중간 선거
(Election Day)

정치적 딜레마: 2월의 주가 상승은 11월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베센트의 선택: 상반기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현금(TGA)을 비축하여, 선거 직전 '화려한 파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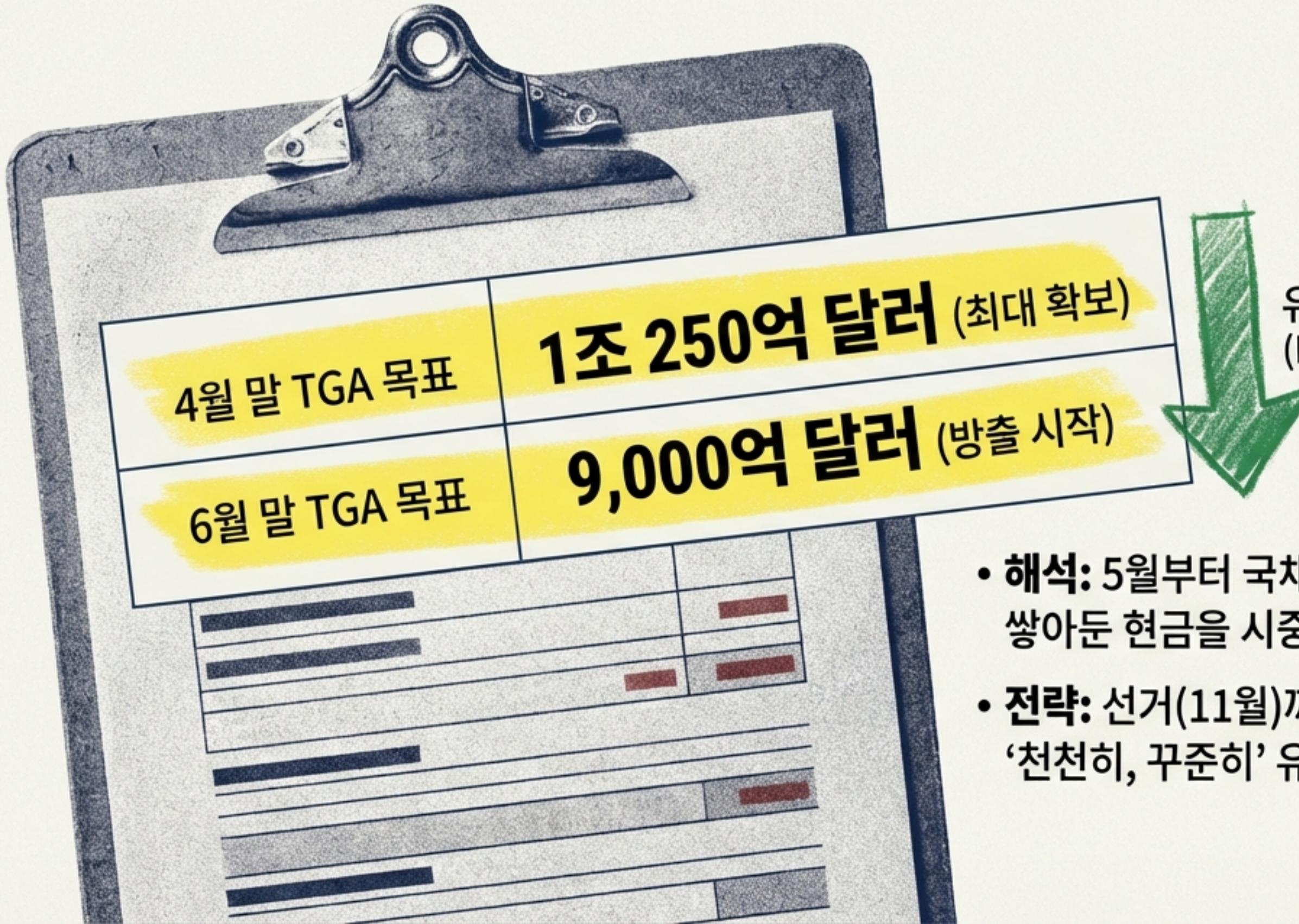


베센트의 시나리오: 인플레이션의 시차를 이용하라



****신의 한 수::** 5월부터 돈을 풀어도 물가 상승은 선거가 끝난 뒤에 찾아옵니다.
11월 선거까지는 고통 없는 주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5월의 반격: 재무부 공식 문서가 말하는 변곡점



유동성 공급
(Liquidity Release)



- **해석:** 5월부터 국채 발행을 멈추고, 쌓아둔 현금을 시중에 풁니다.
- **전략:** 선거(11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천천히, 꾸준히’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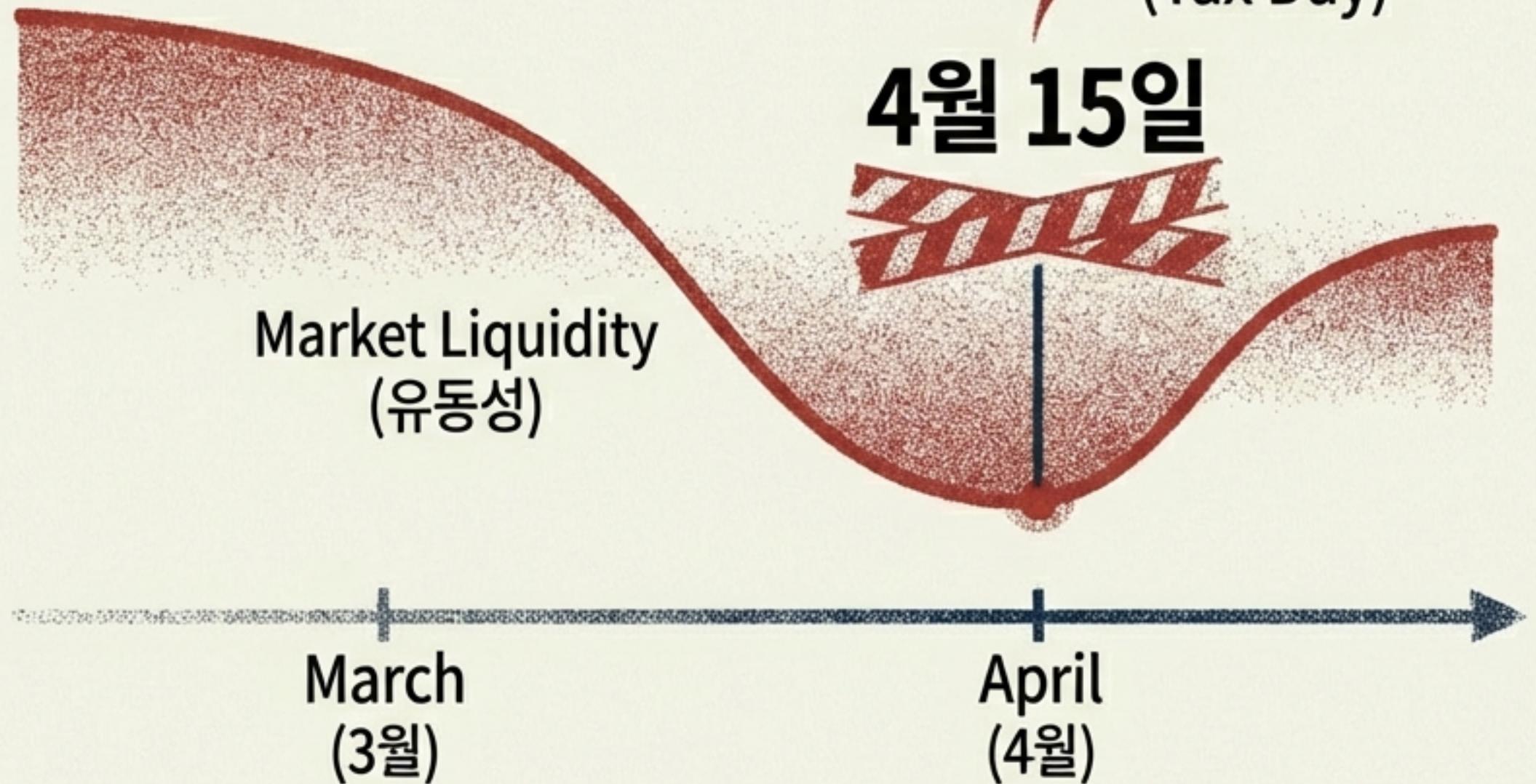
7월의 부스터: 트럼프의 하든카드 ‘베이비 보너스’



- 대상: 2025년 ~ 2028년 출생 아동
- 혜택: 1인당 **1,000달러** 지급
- 조건: **인덱스 펀드** 의무 투자

7월부터 이 자금이 집행되면 주식 시장에 **강제적인 매수세(스테로이드)**가 유입됩니다.
단순한 유동성 공급을 넘어선 **직접적인 주가 부양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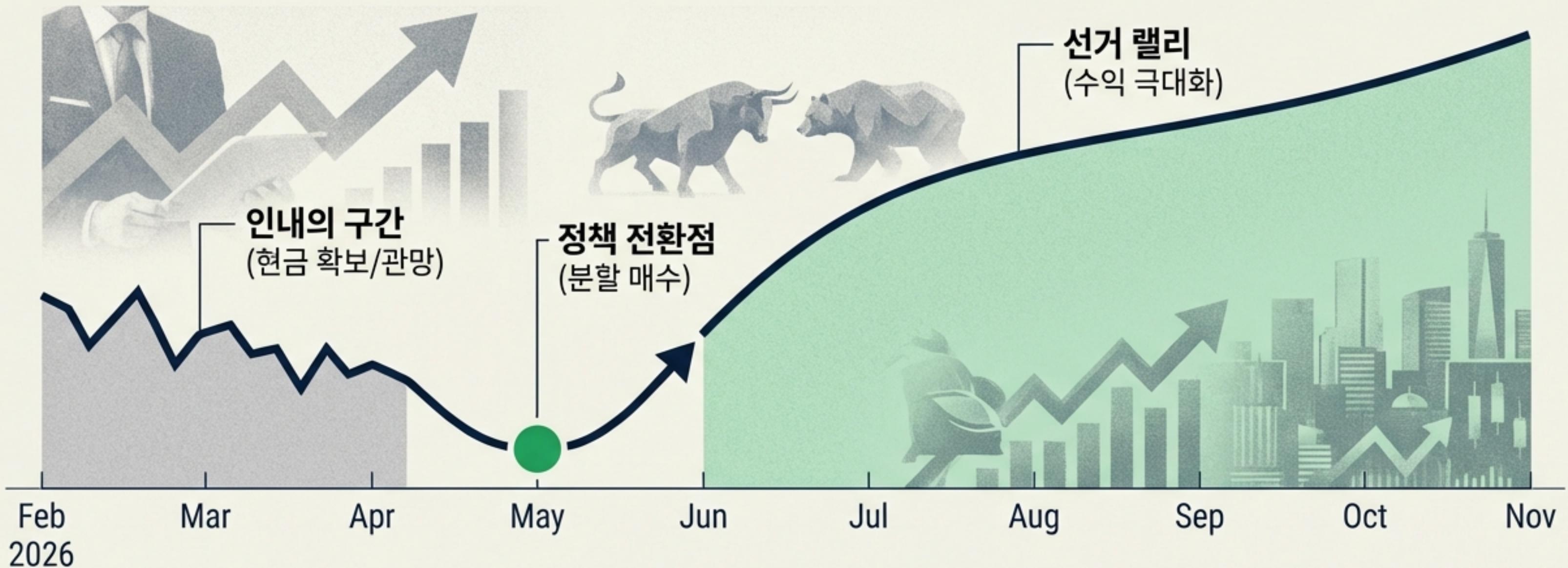
마지막 보릿고개: 4월 15일 ‘세금의 날’을 조심하라



유동성 위기: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 예금을 매도하면서 3월 하순~4월 중순 시중 유동성이 최저점을 찍습니다.

기회:  베센트의 유동성 공급 직전, 시장이 가장 메마른 이 시기가 역설적으로 ‘최적의 저점을 매수’ 타이밍입니다. 

투자 로드맵: 고통의 끝과 파티의 시작



- 현재 ~ 4월: 하락 변동성 주의, 현금 비축.
- 4월 말 ~ 5월: TGA 방출 시작 시점에 맞춰 진입.
- 하반기: 정책 수혜주 보유.

완벽한 계획에도 변수는 있다



- 4년 연속 상승의 피로감:
특정 자산 쓸림 현상 주의.
- 인간의 한계:
지정학적 리스크나
인플레이션 재점화 같은
돌발 변수.

정치가 주가를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입니다.
시나리오를 맹신하기보다, 흐름을 읽고 5월의 기회를 선점하십시오.